

조선어문장의 확대성분설정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박재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어문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휘를 많이 알고있어도 문법을 잘 모르면 글을 제대로 만들수 없습니다.》

문장을 잘 다듬어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를 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문제는 모국어를 습득하는 경우나 외국어를 습득하는 경우나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문장성분화는 문장의 의미를 빨리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문장을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장성분문제는 문장구조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확대된 구조적단위를 다루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섬다.

성분화와 관련한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즉 확대성분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과 확대성분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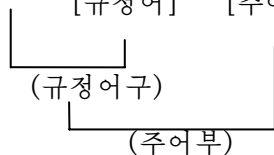
무엇보다 먼저 확대성분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확대성분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에서는 《문장성분은 문장안에서 단어들을 각이한 문장론적기능에 따라 분류해놓은 문장의 최소단위이다.》라는 리해를 전제로 하여 문장속에 들어있는 자립적단어들은 모두가 각각 문장성분으로 되며 다시 묶여지는 그 웃단계의 단어 결합들에 대하여 분, 구, 절 등 그에 알맞는 명칭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사랑하는 동무가 왔다.

[주어] [술어] [피규정어] [술어]

[규정어] [주어]



여기에서 규정어구, 주어부 등과 같은 구, 부는 문장성분이 아니다. 즉 문장성분은 단어단계에서 분석되어 나오는 단위이며 다시 묶여지는 그 윗단계의 단어결합들에 대해서는 구, 부라는 이름을 따로 붙이게 되는 것이다.

때 단어에 문장성분의 자격을 주는 이러한 성분화방법에는 문장에서 때 단어들인 다른 단어와 어떤 문법적관계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는 우점과 함께 일련의 부족점도 있다.

부족점은 우선 문장성분화에서 《규정어-피규정어》식의 분석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단어결합에서 종속어와 주도어사이의 관계와 문장성분이 문장속에서 맺고있는 문장론적관계의 구분이 명백치 않은것이다.

단어결합에서 종속어와 주도어사이의 관계와 문장성분이 문장속에서 맺고있는 문장론적 관계를 동일시할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방법으로 문장성분을 나눈다면 단순문의 경우에도 어떤 문장성분은 두개 또는 세개의 명칭을 띠게 될것이다.

실례로 《영철이는 밥을 빨리 먹는다.》라는 문장은

영철이는 밥을 빨리 먹는다.

임자말 객어 딸림말 서술말

귀착어

딸림받는말

과 같이 분석된다. 그리하여 이 문장에서 《먹는다》는 임자말과의 관계에서는 서술말이고 객어와의 관계에서는 귀착어이며 딸림말과의 관계에서는 딸림받는말로 된다. 물론 《먹는다》가 《영철이는》, 《밥을》, 《빨리》와 맺고있는 관계는 각각 다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먹는다》는 단순한 술어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성분들의 이름은 단어들의 호상관계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주어와 술어는 호상관계로부터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술어에서 진술성이 집중적으로 표현된다는것을 고려할 때 단순히 주어와만 관계되는 이름이라고 볼수 없다.

보어나 상황어도 술어와의 호상관계로부터 붙인 이름이지만 이때 주도어인 술어에는 다른 이름이 더 붙지 않는다. 그것은 조선어문장에서 주도어와 의존어사이의 관계는 의존어의 형태에 따라서 정해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장성분화에서는 《주어—술어》, 《보어—술어》, 《상황어—술어》, 《규정어—술어》, 《규정어—주어》, 《규정어—보어》 등의 관계가 있을뿐 《규정어—피규정어》, 《보어—귀착어》, 《상황어—피상황어》와 같은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

부족점은 또한 문장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하는 단어들에 똑같은 문장성분이름을 줌으로써 문장성분화가 문장의 전일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것이다.

우의 실례에서는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하는 《내가》와 《동무가》가 똑같이 주어로 성분화되었으며 《사랑하는》과 《왔다》가 술어로 성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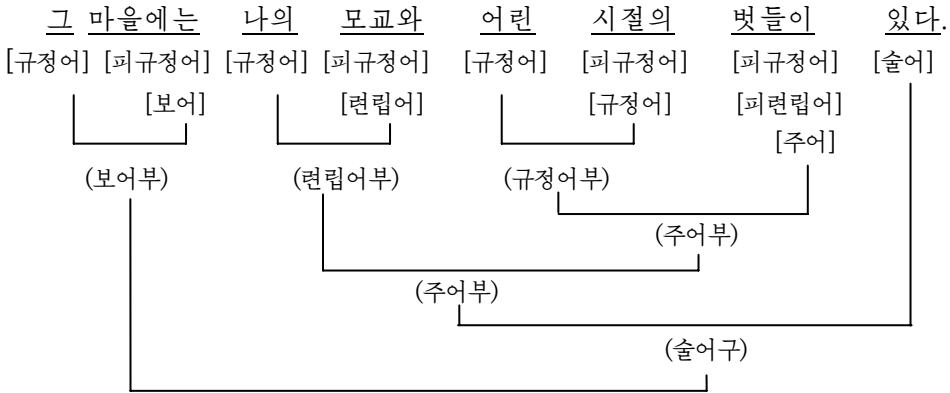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방법에서는 문장을 이루는 때 단어들에 다 문장성분의 이름을 주어 성분화를 한 다음에도 똑같은 문장성분으로 불리우는 단어들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하는것을 부, 구, 절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시 묶어놓아야 문장의 전일적인 구조를 리해할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방법의 성분화가 본질에 있어서 문장의 성분화가 아니라 통합의 성분화이기때문이다.

통합의 성분화에 의하여 얻어지는 단위는 문장성분이라기보다 통합성분이라고 하는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수 있다. 통합성분의 분석으로써는 통합구조를 리해할수는 있어도 문장의 전체 구조는 리해할수 없다.

부족점은 또한 문장성분화가 매우 복잡하여 문장의 의미를 보다 빨리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것이다.

우의 실례에서는 때 단어들의 통합관계를 따져서 문장성분의 이름을 줌으로써 어떤 단어에는 두개의 문장성분이름이 겹치고있다.

이것은 단계적확대구조의 분석에서 때 단어들의 문장론적기능에 따라 성분화를 하는 경우 불가피한 현상으로 된다.



우의 실례에서는 8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분석하는데 13개의 문장성분이름과 6개의 부, 구이름이 리용되었다. 이것은 20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성분화하려면 40여개의 문장성분이름과 부, 구, 절이름을 리용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언어생활과정에는 20개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의 문장성분화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는것은 대단히 복잡한 일이다.

이와 같이 문장을 이루는 때 단어들에 문장성분의 이름을 주는 성분화방법은 우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볼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성분화에서 확대성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확대성분을 설정하는 견해에서는 문장의 구성단위로서의 문장성분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여러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질수도 있다고 본다.

확대성분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자립적단어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장성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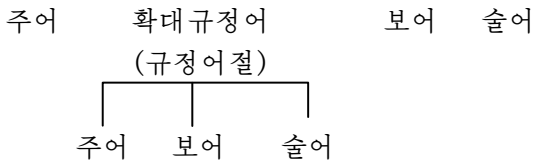
확대성분은 단어결합형식 혹은 문장형식을 취한것으로도 이루어지며 그 내부에 단어들의 문장론적결합관계가 존재하는데서 단순성분과 뚜렷이 구별된다.

우리가 사는 마을을 우리 손으로 알뜰히 꾸리자.

우의 문장에서 한줄을 그은것은 단순성분이고 두줄을 그은것은 확대성분이다.

이 방법은 다시 둘로 갈라볼수 있는데 하나는 1차적성분화에 의하여 구획되는 단위가운데서 확대구조를 이루는 단위(두개이상의 자립적인 단어로 이루어진 단위)에 확대주어, 확대규정어 등 확대성분의 이름을 주고 그안에서 또다시 개개의 단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분화를 하는것이다.

우리는 그가 어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의 실례와 같은 분석방법에서는 하나의 단어에 두개의 문장성분이름이 겹치는 일이 없으므로 간단하고 또 확대구조의 맨 아래층에 속하는 단어들의 문법적관계까지 분석한다는 우점을 가지고있지만 문장구조가 여러 단계로 확대된 문장의 성분화에서는 역시 복잡성을 면할수 없으며 실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확대성분을 설정하는 성분화방법의 다른 하나는 문법적성분화를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한번만 진행하는것이다.

례 1; 우리는 그가 어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어 확대보어 술어

그런데 실제적인 문장성분화에서는 확대보어안에서 규정어를 따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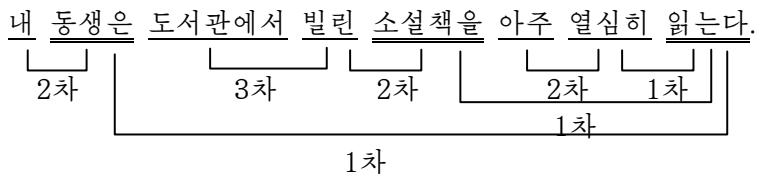
례 2; 우리는 그가 어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어 확대규정어 보어 술어

우와 같이 문장성분화를 하는것과 관련하여 확대성분의 계선문제가 제기된다. 즉 《그가 어제 떠났다는 소식을》 전체를 확대성분이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그가 어제 떠났다는》을 확대성분으로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서는것이다.

확대성분의 계선문제는 주로 규정어문제에 귀착된다. 즉 위의 례 2에서 규정어를 설정한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가 하는것이다.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를 실례 1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실례 2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은 술어를 중심으로 2차적인 관계를 가지는 단위인 규정어에 특수성을 부여한것으로써 이론적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있을수 있다. 즉 문장성분화를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한번만 진행한다면 실례 1에서처럼 《그가 어제 떠났다는 소식을》이라는 전체를 확대보어로 보아야지 2차적단위인 《그가 어제 떠났다는》을 따로 확대규정어라고 하는것이 옳은가 하는것이다.



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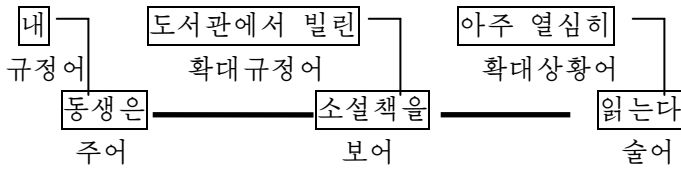
위의 실례에서 술어와 2차적관계를 가지는 단어는 세개 즉 《내》, 《빌린》, 《아주》이다. 만일 《내》와 《빌린》을 규정어라고 한다면 똑같이 2차적관계를 가지는 《아주》에도 문장성분의 자격을 주어 상황어라고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가진 문장에서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는 술어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도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다시말하여 1차인가 2차인가 하는것을 절대화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문장에서 단어들이 노는 역할을 보면 기본적인것이 있고 그것을 수식하는것들도 있다. 그러므로 문장에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기본성분과 기본성분을 수식하는 수식성분이 있게 되는것이다. 조선어문장에서 기본성분은 술어, 주어, 보어이다.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성분뿐만아니라 수식성분도 알아야 한다.

위의 문장에서 《열심히》는 술어와 1차적관계에 있으며 《내》와 《빌린》은 술어와 2차적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 세 단어는 기본성분을 수식한다는 점에서는 기능이 같다. 그리하여 술어를 수식하는 《열심히》를 상황어라고 하는것처럼 주어를 수식하는 《내》와 보어를 수식하는 《빌린》을 규정어로 설정하게 된다. 수식성분을 분석한 다음단계의 문장론적단위들은 확대성분의 구성요소가 된다. 그리하여 《아주》는 기본성분을 수식하는것이 아니라 수식성분을 다시 수식하기때문에 독자적인 문장성분으로 되지 못하고 확대상황어를 이루는 구

성요소로 된다.



실제적인 성분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된다.

○ 내 동생은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책을 아주 열심히 읽는다.

규정어 주어 확대규정어 보어 확대상황어 술어

이러한 방법으로 문장성분화를 하면 예 2에서의 문장의 문법적성분화가 타당성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확대성분의 계선은 보어에서가 아니라 규정어에서 그어진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말의 문법적측면을 더 깊이 연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조선어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가야 할것이다.